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100’ 본격화

RE100 대응 조직 개편·전담 TF 구성
태양광·수소도시·해상풍력 신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특구 대비 배후도시 조성도

영암군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순환형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지역순환 경제과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발표 직후 전담 TF(RE100TF팀)를 꾸려 전략 수립을 강화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광역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각 법안은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

형 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 정주지구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규정하고 있어 군이 추진 중인 그린시티 전략과 방향이 일치한다.

영암군은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태양광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민 수용성이 낮을 경우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군은 체감형 이익 공유 구조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삼호·미암 일대에 2027GW 규모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구성 중이다.

1단계 육상 태양광 1.6GW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연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참여 주민에게는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태양광을 넘어 에너지 기반 신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제4기 지역으로 선정되며 내년부터 삼



우승회 영암군수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100’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포지구 수소생산시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단계별 확장을 통해 1천500명 청년 일자리, 3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 기자재 기반도 강화 중이다. 군은 지난달 타당성 조사에서 베어링·변압기 등 핵심부

품의 경제성을 확인했고, 관련 시험센터 구축 사업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점도 크다.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춰 AI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영암군도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군은 삼호



진도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진도군은 17일 “최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김선주 부군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폭력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광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 방안과 관리자로서의 조

직 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희수 군수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목포상의, 기업결산 실무 무료교육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와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결산 실무 무료교육’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50여명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참석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회계·세무 지식을 집중적으로 다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 전문가가 직

접 강의하며,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경리·총무부서 실무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다수 참석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교육은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회계·세무 지식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군 연말 뮤지컬·클래식 등 문화공연 ‘풍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타요 뮤지컬·뉴욕필 파르렛 등 다양

완도군이 연말을 맞아 뮤지컬과 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군민들이 손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어린이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꼬마 버스 타요-수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이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무대에 오른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이 기대되며, 예매는 19일 오후 1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다음 달 3일에는 세계적인 연주 단체인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초청 공연이 펼쳐진다. 연말인 12월31일에는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군민들을 찾아가는다. 이흥렬, 이윤미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가족 간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공감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 환경을 갖추고,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관람료를 크게 할인하는 등 문화 소외 계층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한지영 완도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의 날을 통해 군민들께 질 높은 공연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며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거리 경관 개선…전선 지중화 속도

민선 8기 공약…전선주 200여본 철거
도심 미관 개선·보행 환경 향상 등 호평

해남군이 추진 중인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읍내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지중화 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도심 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향상을 목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다음 달 중으로 101스퀘어부터 해남교까지 300m 구간의 중앙2로 지중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해남읍의 중심축이자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선 난립으로 인한 혼잡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군은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거리’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남군은 2021년 12월 군청사 주변(구 광주은행-문화예술회관 700m)을 시작으로, 천변



해남읍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성내리 53-1번지 일원 사거리 전·후 모습.

〈해남군 제공〉

교·서림공원-주공1차-군청사거리)에 이르는 해남중학교 통학로 1.81km, 문화원사거리-광남그린빌라-천변교 북부순환로 450m 등 주요 도심 구간의 전선주와 통신선을 잇따라 지중화했다. 이 과정에서 200여본의 전선주가 철거됐으며, 해남군·한국전력공사·통신사 간 협업을 통해 도심 미관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인 해남중학교 일대는 전선이 사라지며 시야가 트이고 인도·차도 구

분이 명확해져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거리 전경이 정돈되고 시야가 트이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심이 훨씬 깔끔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해남읍이 점점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로 변하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청년육아나눔터 ‘부모·자녀 성장 프로그램’ 첫 선

오늘부터 사흘간 선착순 95명
액자·스폰·키링 만들기 등 다채
보호자 동반 참여…수강료 무료

영광군이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며 지역 돌봄 문화 확산에 나섰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18일부터 ‘2025년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18일부터 ‘2025년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육아나눔터 개관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

하는 다양한 체험 교육을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총 정원은 95명으로 과목별 10-15명씩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인구교육복지→기관별 평생학습→기타→교육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6-7세 대상으로 하는 ‘말랑말랑 뇌볼링’(11월21일-12월19일 매주 금요일 운영, 회차별 10명씩 총 20명)을 비롯해, 5-8세를 대상으로 하는 ▲LED 별자리 액자 만들기

(11월26일) ▲자개 T스폰 만들기(12월3일) ▲크리스마스 도어벨 만들기(12월10일) ▲K-데인 레진키링 2종 만들기(12월17일) ▲LED 크리스마스 패트 풍선 만들기(12월24일) 등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보호자 동반 참여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선보이고 추후 정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행복한 육아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겨울철 감염병 예방 유충 집중 방제

주택가 하수구·정화조·축사 등
친환경 약제·자가방역 병행도

함평군이 겨울철 감염병 매개 해충의 반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절기 유충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겨울철에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가 하수구·정화조·축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유충 집중방제를 진행 중이다. 〈사진〉

이번 방역은 겨울은 해충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시기지만, 다음 해 봄 모기 성충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군 보건소는 실제 현장을 돌며 고인 물 점검과 약제 살포를 병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충구제를 사용해 인체와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충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형 자가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수구·화분 받침·빗물받이의 물 비우기, 주택·축사 주변 풀베기 등 일상 속 유충 서식지 제거 활동을 군민과 함께 실천하며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겨울철 유충구제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와 어르신 모두가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도 생활 속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김연수 기자